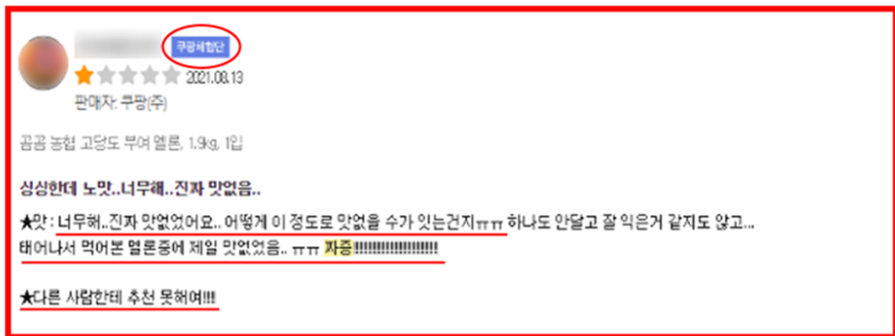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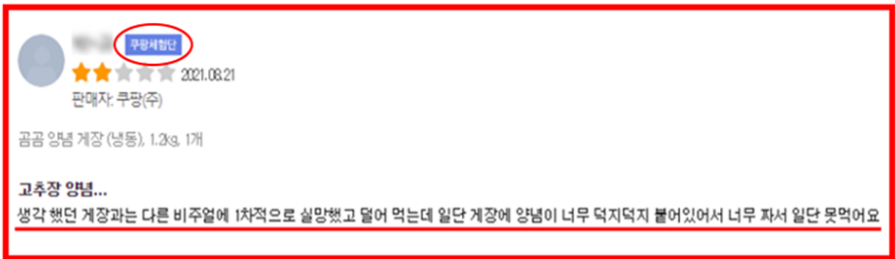
2024. 6. 14.

1.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 없다. 절대 추천 못해요..” 솔직 리뷰에도 공정위는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쿠팡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 등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직원 리뷰 사례



*실제 직원 리뷰 사례

2.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쿠팡은 지속적으로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이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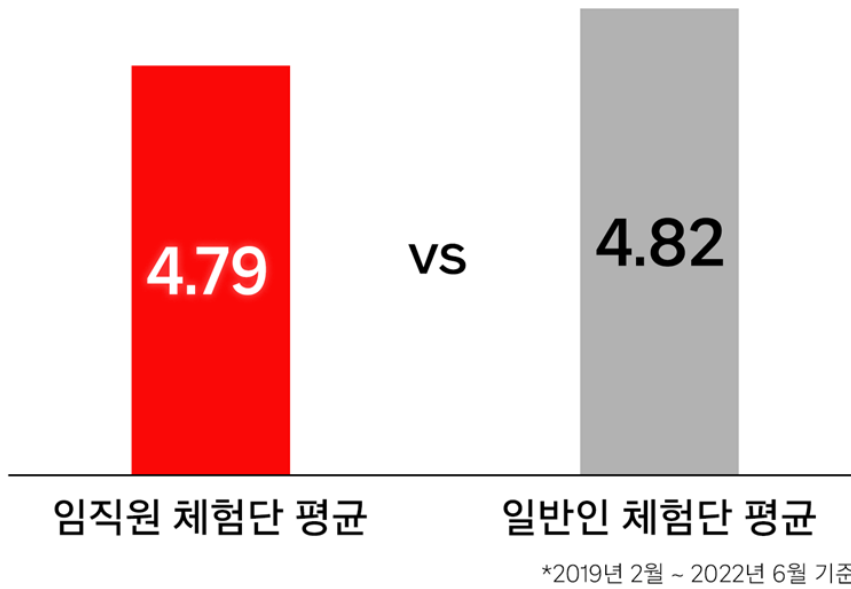
- 하지만 공정위는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균 1점을 지속 부여한 직원리뷰 사례

	작성일	상품	별점	내용 요약
임직원 체험단 유 모씨	2019.4.17	보습크림	1	베이비 파우더 향이 너무 독하고 강합니다
	2019.4.19	스포츠 음료	1	정말 별로였어요. 풍선껌 맛입니다
	2019.4.23	주방세제	1	향이 너무 안 좋아요
	2019.4.30	고양이 화장실	1	향이 너무 역했어요

3.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도 낮았습니다.

-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는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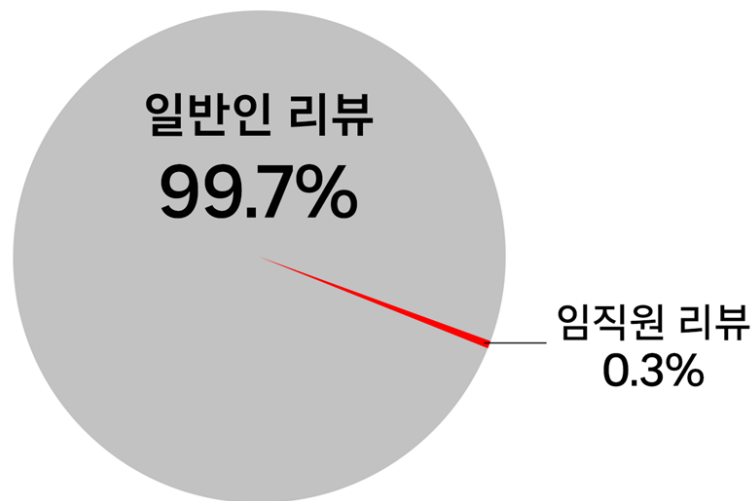


4. PB상품 리뷰 중 임직원 리뷰는 고작 0.3%에 불과합니다.

- 공정위가 문제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수 2천5백만 개 대비 고작 0.3%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공정위는 전체 리뷰수 2천 5백만개의 극히 일부인 7만개 댓글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리뷰는 고작 0.3% 불과



5.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왔으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쿠팡이슈

★★★★☆ 2022.03.08

판매자: 쿠팡(주)



빈.수레가..여기..빈 부레또..치즈만..있다.

이거 아침에 데워먹으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실망했습니다
안에 치즈가 만은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가 더 많았습니다ㅠ 맥도날드 스낵랩 퀄리티예요...
안에 뭐 거의 없어요 페퍼로니를 먹었다는 느낌은 전혀 없구여.
치즈만 있는데 그것도 중간쯤부터 잇서여 흑흑... 맛!!!!없!!!!어!!!!어!!!!어!!!!어!!!!어!!!!어!!!!

그래도 치즈는 꽤 낭랑하게 들어있었습니당
진짜 부리또인데 진짜 안에 뭐가 있는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흑흑
아침에 아무 기대없이 그냥 위에 무언가를 넣어준다.는 느낌만 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팡 및 쿠팡의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쿠팡체험단 이벤트로 상품을 무료로 제공 받아 작성한 구매 후기입니다.

쿠팡체험단 이벤트로 상품을 무료로 제공 받아 작성한 구매 후기입니다.

맛만족도 예상보다 맛없어요

1명에게 도움됨

도움이 돼요

도움 안돼요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